

여성심을 긍정하는 즐거움 반천사 시작됐다.



제 10대 종여학생회
김신 현경 · 최전 승민 선거운동본부

10대 총여학생회 정 후보 김신 현경(정외 3)

75년 서울에서 딸자로 태어나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주 확고하게 '딸이든 아들이든 똑같이 키운다'는 나름의 철학을 고수하셨으므로 어린 시절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며 자랐다.

이후 대학 입학 전까지 모범적이면서도 '개기는 이중생활의 연속. 나의 여고시절은 권위적인 교장선생과 '넌 못생겼지만 공부는 잘 해서 다행이다'라는 소리를 서슴없이 해대는 율리 선생과의 싸움으로 일관된 것이었다. 그 시절, 그 때의 세상에 대한 나의 오해는 두 가지. 첫째는 '대학 가면 낯갓지'와 둘째는 '재대로 된 남자라면 여자의 외모 따위는 따지지 않을 거야'.

1학년 - 노래패와 학회에서 활동하다. 그러나 늘 불편한 남자 선배와 동기들과의 관계. 그들은 '여자다운 여자'와 '당찬 여자'를 구분하는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2학년 - 여성운동의 이론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 그러나 아직 이론적인 수준. 자기 입만 쟁쟁다고 보였던 여자 선배들이나 동기들과의 만남에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낀다.

휴학. - 거리에서 멋대로 담배를 피우는 여자들이 가득한, 마음대로 횡단 보도를 지나다닐 수 있는 나라에서,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되뇌었다. 나는, 그저 가벼워지고 싶었다. 평생 이방인처럼 살고 싶다.....

3학년 - 돌아오다. 사람들을 만나다. 생각하다. 많이 웃고 많이 울다. 결심하다. 아마도, 이방인으로서의 삶. 당분간은 유보하리라고, 내게 가능한 희망을 유보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오늘 나 이 약력을 쓰다.



10대 총여학생회장 부 후보 최전 승민(경영 4)

76년 11살 차이나는 언니와 8살 차이나는 오빠 밑에 막으로 태어났다.

1학년 - 주위 사람들의 우려 속에서 여자들이 적다는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웬지 모르는 실망과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2학년 - 도피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이 '물질주의적 자본주의의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을 찾아가 살아야겠다는 '환상'을 갖게 되었다. '기쁜날 함께'에 접하게 되고 매료된다. 사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사회를 바꿔볼 수도 있다는 생각.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또한 여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총학생회 성정치국을 선배들과 함께 하게 된다. 그리고 말았던 성정치문화제를 치뤘내기도 했다.

3학년 - 성정치위원회가 발족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작지만 무엇인가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4학년 - 여성자치연합이 구성됐다. 여성운동을 고민하고 하는 모임들이 학교에 이렇게 많다는(이전엔 부족하긴 하겠지만) 것에 감동을 하며 진정한 '여성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총여학생회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해왔지만, 비판이 실천으로 옮겨질 때가 비로소 '실천'이 된다는 생각.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총여학생회를 바꿔보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제10대 총여학생회 선거 부후보를 결심하게 되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질서 - 여/성/주/의



다양성의 정치

-소외와 배제의 방식을 넘어서
여성주의 네트워크의 실현

여성문제는 여성의 일상 곳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어느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며 언제 어디에서나 여성들은 억압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문제를 하나의 목소리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종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단일하게 뭉뚱그리는 것은 더 큰 소리로의 도약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각각의 목소리를 위계화시키고 중심과 주변으로 이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계해 왔던 가부장적 질서의 답은 풀이 아닐까요? 여성이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각각의 낮은 목소리가 큰 흐름을 이루는 것, 소외와 배제를 넘어서는 수평적 질서를 새롭게 구성해 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고자하는 여성 연대입니다.



성공할 여자가 알아야 할 몇가지들..(?!)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취업간담회는 소수 성공한 여자들의 사례위주였습니다.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여성적 가치를 숨기고 월등한 남성과 같은 능력을 갖추라는 명예남성에의 주문이었습니다. 여성취업과 그 이후의 사회생활이 여성에게 불리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예비사회인으로서 여학우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 정보입니다.

이화여대의 경우 선배들은 절대 우월한 엘리트의식이나 근거없는 자신감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이화여대에서 여학우들은 한달에 한두번씩 '만화가를 지원 하는 여성들을 위한, 선후배간의 만남' 또는 '대한 생명에서 근무하는 간부사원, 신입사원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취업 정보나 남성중심적인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하우들을 전수 받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훨씬 더 잘 살아남을 것입니다. 화려한 LIFE STORY보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학내 성폭력은 증가해온 것이 아니라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을 향한 성폭력은 그녀가 속한 사회 속에 은폐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성의 전당임을 표방하는 "연세", 청춘, 저항, 치열함의 상징인 학생회, 동아리, 학회에서도 성폭력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으며 언제나 개인적인 문제 혹은 쉬쉬해야할 골칫거리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여성들은 쉽사리 문제제기 할 수 없습니다. 공론화를 하더라도 피해자 여성을 향한 시선과 그녀를 보호해 줄 기구, 법규의 부재는 그녀를 이중의 피해자로 몰아 갑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쓰여진 학칙과 성폭력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좀더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본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자자연립은 이미 많은 타 대학의 여성 위원회, 중여학생회 등과 연계하여 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진행에 왔습니다. 법분야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모든 가능한 방안들을 법조계의 전문가와 논의하였고 자치 규약 우선법칙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학칙이 가장 중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미 학칙 개안을 마련한 상태이며, 학교측과 협상에 들어간 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학칙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소책자도 발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준비만이 학칙 제정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여성주의의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 1) 여성주의적 연대를 실현하겠습니다.
- 현재 10여명에 이르는 학내 여성단체들과 대학의 여성단체들을 공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여성들의 모임은 전국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혼자입니다. 여학생우회를 비롯한 외부 여성단체들과 타 대학 여성단체들과의 공식적 통로를 개설하겠습니다.
- 2) 여성주의 정보의 DATA BASE를 만들겠습니다.
- 여성관련 서적을 수집, 정리하여 여성주의 서고를 만들겠습니다.
- 정신대, 성폭력, 여성문화(공연), 취업 등의 정보 BANK를 만들겠습니다.

2. 여성 스스로의 문화를 창조하겠습니다.

- 1) 여성의 일상 문화를 일구겠습니다.
- 여성문화 기획단을 구성하여 여성주의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놀이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 학생회관 여학생유계실을 '여성주의 카페(가칭)'로 만들어 휴식의 공간뿐 아니라 여성에게 필요한 학내 학사 관련, 취업 관련 자료들을 비치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적 영향상영, 전시, 공연,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2) 여성도 운동(SPORTS)할 권리가 있습니다.
- 여학생이 수영장과 대강당 앞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운동을 즐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을 무력하게 만든 교육과, 남성의 시선으로부터 불편한 때문입니다. 수영장과 체육복상부터 여성만의 사용시간을 지정하겠습니다.
- 3) 여성임을 긍정하는 축제적 자리 - 여학생 주간의 여성문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 학내의 여성운동을 고안하는 자치단체, 여학생처, 여성인권센터 수업 등과 함께 여성문화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3.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1)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겠습니다.
- 현재의 열람상 규정은 가해자인 남성의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여성이 주체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겠습니다.
- 2) 성폭력 전담기구를 만들겠습니다.
- 성폭력사건 발생시 제정된 학칙을 운용하고 법자문 및 변호사 선임, 피해자 자유 상담 프로그램,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등, 학내 성폭력 전선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 3) 여성을 위한 호산술 강화를 개설하겠습니다.
- 현재 남녀 공동으로 개설된 호산술 강좌는 여학우들에게 필요한 성폭력 대처방안을 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호산술 강좌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 교양강좌 산실을 추진하겠습니다.

4. 여성이 사회를 살아가는 길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1) 산업생 오라클인터뷰에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성을 공론화하겠습니다.
- 남녀간의 성적 차이를 고민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성폭력에 대한 교육과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2) 여성의 취업현실에 기반을 둔 취업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소수 여성의 성공사례 위주의 형식적 취업간담회를 지양하고, 실제 취업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취업간담회를 준비하겠습니다.

5. '연세여성'을 독자적 여성언론으로 독립시킵니다.

- 이제까지 총여학생회 집행부의 기관지였던 '연세여성'을 여학우 개인들, 학내 여성 소모임들이 발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언론으로 제도화하겠습니다.
- 총여학생회 산하에 영향력 없는 언론, 조차나 연세자체의 독립적 위상과 내용을 갖는 언론을 위해 독자적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여성주의란 '여성이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라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로부터 출발합니다. 국민학교 시절 "내가 남자였으면....."하고 생각해보신 경험이 없으셨나요?

자신이 여성임에 대하여 어떠한 긍정성도 찾지 못하고 명예 남성화 되어버린 야심찬 여학우들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성적으로 대상화되는 굴욕스러운 현실을 앞에 두고 자신이 여성임이 중오스러울 뿐인 그녀들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자신이 여성임에 대하여 자신도 알지 못했던 문화적 사회적 가능성들을 실험해봅시다. 여성스러움에 대한 비하적인 시선을 거부하고 당당하게 다양한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고 일을 처리해나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대학 사회에서 여학우들끼리의 모임은 남학우들의 "지금 편가르자는거냐."라는 한두 마디 빈정거림에도 쉽게 무산되곤 합니다. 그러나 그네들의 당구 모임, 농구 모임, 혹은 사창가를 마지막 코스로 하는 군대환송모임에서 여학우들은, 아무도 강제하지 않았건만 제외되거나 혹은 꽃으로만 존재합니다. 자신의 애인과의 의사 소통이 불완전하다고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남녀 간의 온전하고 전인격적인 인간 관계가 가능하려면 더욱더 여성은 모여서 우리의 사회적 현실을 기반으로 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성이 자신 안에 어떠한 것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설불리 남녀 간의 조화를 말하는 것은 차라리 기만입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언제나 실패해 왔고 여남 불평등을 방조하는 효과를 가져 왔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가치를 여남이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그 날을 원한다면, 여성은 더 이상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스스로에 대하여 "나는 이러이러 하다."라고 스스로 밝혀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스스로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여성들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방식, 당신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즐거운 반란자(디프)들의 한마디

우 디프 : difference의 diff에서 따온 말.

not "disable", but "differently able"

- 여성으로 자신을 긍정하고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여성운동들 함께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대학에 와서 여학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대우'를 해주지만, 거기서 소속감을 느끼기는 힘들었다. 지금은.. 너무 즐거워 -아리(구초 소영)

여/성/주/의 선분을 함께 하기까지 많은 망설임이 있었다. 내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문제를 공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 내게 후회는 없다. 이 새로움이... 행복하군요. -요비(장경 정미)

나는 팔이 아프고 힘들다. 그리고 나는 다리 굵은 남자다. -김기 성희

선거라는 공간에는 정말 많은 오해들이 존재하는 듯하다. 특히나 여성주의에 대한 오해들...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 나에게 많은 고민을 던져주는 것 같다. -다시(이서 현옥)

우리들의 얘기를 우리들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다는 것, 이로써 즐거운 경험은 지금까지 없었다. -찰랑(김손 보미)

내가 그 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준 곳(?) 그동안 어쩌면 너무나 만성화되어 당연하게 여겼거나 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너무도 중요하고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절실히 느끼고 있다. 뭐, 아무튼 요즘은 상당히 즐겁다. -이안(임김 은정)

나는 남성과의 연대를 선분리 얘기하기엔 너무나 엄한(not strict)세상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다. -소심남(이고 도원)

또다시 선거... 선거는 그 자체로 만남... 새로운 이들과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이들과 - 그래서 선거는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런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에... 모두들 그러하길.. (근데 난?...) 아직 어색한 부름 -해아

내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이제... 나의 시각으로 여성으로서 엄마의 딸로서... 볼 수 있었다. 우리들이 함께 하기에....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을 것같은 상쾌한 아침 같은 느낌이다. -틈틈..(최박 명현)

처음 경험해 보는 선거... 비록 그다지 한 일이 없는 듯하지만 피곤하고 그랬다... ^_^; 하지만 몸이 피곤해도 마음이 즐거운 것은 왜일까? 사랑해요♥-아미

한동안 방황하다가 바바질 일이 생겨 즐거웠고 더군다나 내가 함께 하며 가장 편해하고 유쾌한 이들이 있었기에 더 기뻐합니다.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고, 세상은 여전히 살아가기 만만한 곳이 아니지만 어쨌든 다들 이렇게 모였다는 것이 그래서 서로에게 든든한 백이 되고 분노와 기쁨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인연이라는 것을 믿고 싶어질 만큼 소중합니다. 어쨌든 나쁜 사람들 혼내주고 행복해집시다. -까몽(강김 지영)

선분을 함께 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난 내 생각과 사상을 드러내는 게 자신이 없었다. 지금도 그리 자신 있지는 않다. 선거기간은 많이(?) 남아있고 아직은 평가를 내릴 수 없을 듯. 내 스스로 한계가 느껴져 조금은 힘들다. 더 배워야... -열우(정희 한별)

무지는 죄다. 그러나 알고서도 바꾸려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다. 내가 주체가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유쾌한 일이다. -레드(김서 상희)

모순에 맞서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신의 정체성에 기반하여야 함을 이번 선거기간동안 배웠다... -시루(장경 휘)

선거라는 공간이 주는 어색함, 불편함. 그럼에도 여러분들과 즐겁게 매꿀 수 있었던 이번 공간만큼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하수